"年 소득 1억 이상 농민 200명으로"

강진군 '富農 2010-200' 프로젝트

순소득 5천만 원 이상 118 농가

융자 확대·사업비 등 집중 지원

'순 소득 1억원 이상 농민을 200명으로 늘려라'

강진군이 오는 2010년까지 연간 1억원 이상의 순소득을 올리는 농민 200명을 육성하는 '2010-2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소득 작물 발굴

현재 강진에서 농업으로 1억원 이상 순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60명에 불과하다. 강진군은 올해 말까지 순소득 1억이상 농가를 100명으로 늘리고 2010년엔 200명으로 확대하는 '부농 육성' 사업에 착수했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군내 300여 농가 중 순소득 8천만원 이상 34농가와 5천만원 이상 84농가 등 모두 118농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주민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의 금리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범위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고소득 유망 농가인 화훼와 채소특작, 식량작물, 가공유통, 축산농가 등에도 사업비 87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팀을 신설,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물 집중 발굴에 나선다.

또한 작물별 연구모임을 현행 19개 조직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90여개 작목반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보조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분야별 고소득농가와 50여명의 관계공무원을 분야별 후견인으로 지정해 농민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전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후견인 지정

황주홍 강진군수는 "부농농업인 육성을 통해 침체된 농촌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강진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부농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10년이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지역 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해남 상징 아치 조형물 해남군의 관문인 계곡면 국도 13호선에 지난 12일 지역을 상징하는 아치 조형물(폭 34m, 높이 11m)인 '빛 태고로부터'가 설치됐다. 금속 재질과 화강석으로 제작된 조형물은 공룡 뼈와 세계를 비추는 햇살이미지를 형상화해 '희망찬 해맞이의 땅'을 상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영암 대불산단 첫 LNG 공급

10.5㎞ 도시가스 배관 연결 마무리

영암 대불산업단지에 액화 천연가스(LNG)가 첫 공급됐다.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는 12일 "지난 해 8월 착공한 영산강 하굿둑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나 ㈜보워터 코리아까지 10.5㎞ 구간의 대불산단 도시가스 배관 연결사업이 마무리돼 현대삼호중공업 대불 1공장에 LNG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13일에는 세제 제조회사인 제오빌더에 이어 다음 주에는 KC 중공업에도 LNG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대불산단 내 도시가스 배관 연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입주 업체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자유무역지대 청사를 비롯해 7개 업체에도 LNG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두 93억 원이 투입된 대불산단 내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그 동안 벙커 C유를 사용했던 28개 업체들이 연간 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불산단은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LNG가 공급되지 않았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 55개 우수기관 벤치마킹

혁신 성공모델 정립

광산구가 고객만족과 혁신 성공모델 정립을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광산구청 공무원 62명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5개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및 기업을 방문해 우수 평가를 받은 각종 정책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문화정보팀은 문화재보존 관리 및 현창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 안동시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를 2박3일간 방문한다.

또 지역경제팀은 기업SOS지원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경기도 등을 방문하고, 공원녹지팀은 도심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대구광역시 등을 방문한다.

벤치마킹 결과는 4월 중 전갑길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하는 보고회에서 공개돼 우수 시책은 구정에 반영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사료비 절감 위해 청보리 재배 확대

전남도 287억 투입

전남도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를 확대한다.

전남도는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청보리 및 사료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모두 287억원의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제 사료가격은 지난해 20% 상승한 데 이어 올 초에도 또 다시 8% 가량 올라 축산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5천㏊ 늘어난 1만7천㏊에서 청보리 등 사료 작물이 재배된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청보리 등 사료 재배 사업에 142억원을 지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두로 부자농촌 만들기'

화순군 한천면 33농가 소득작목 육성

화순군 한천면(면장 구복규)이 자두를 새로운 소득작물로 육성한다. 33 농가가 자두 농사를 짓고 있는 한천면은 지난 2006년 '자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으며 올해 330㎡ 규모의 농산물 집하장을 신축하고 선별기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19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자두 재배면적도 40㏊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올해 2억원, 2009년 7억원, 2010년 12억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된다.

자두는 저장이 어려워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어려우며 건자두는 생자두보다 영양분이 3~4배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웰빙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새얼굴

"영광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

정종순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임직원들의 화합과 마인드 변화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이익 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정종순(54) 신임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은 "'농협다운 농협, 신뢰받는 농협, 하나되는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쇄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정 지부장은 농협대를 거쳐 광주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78년 농협에 입사해 광주지역본부 광산지점장, 전남지역본부 장흥·화순 지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한혜옥씨와 사이에 2녀. 취미는 등산과 묘목 기르기.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남군 7,300만원 배정

해남군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모두 7천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은 2종 의료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주민 중 혈우병·만성신부전증·근육병 등 111종의 질환자로,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인 1급 등록자가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유전성 운동실조증 등을 앓고 있을 경우 본인치료비 전액과 월 3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담양 ㈜한국식품 HACCP 업체 선정

담양군 무정면에 있는 (주)한국식품(대표 엄혜연)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지정업체로 선정됐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 처리·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들어가거나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별로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지킨 업체에 주어진다.

한국식품은 9억여원의 자체사업비를 투자해 김치가공 시설과 과학 기자재를 설치하고 전국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등 HACCP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식품은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배추김치·갓김치·토하젓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3년 ISO 9001 인증에 이어 2004년에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